

언약을 전달하는 인생

(수23:1-13)

서론: 무엇을 보고 듣는가에 따라 생각과 뇌에 각인되어 세포와 삶 속에 적용되며 영혼과 영원한 것에 관계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말씀하십니다(수23:14).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응답을 받았고 증인으로 증언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고 증인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후대에게 무엇을 말씀했을까요?

1.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수23:3, 수23:10)

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할 힘이 없었습니다.

- 당시 가나안은 7족속, 31왕과 함께 강대한 병기를 갖추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며 정복하게 하셨습니다(수1:1-9).

나. 우리의 신분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 구원의 역사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영세전, 성육신, 부활, 재림주, 심판주).
-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면 됩니다(벧전3:8-12).
-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비하신 것(3,9,3)을 발견하고 누리는 영적싸움을 하는 것입니다(수23:9).

2.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수23:6, 수23:14)

가.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다 응해졌음을 고백했습니다(수23:14).

- 여호수아는 출애굽과(출3:18), 광야에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 지금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에 내 생각, 세상 주장보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창17:17-18 → 창18:10-13, 창21:1-2 / 행27:10-12 → 행27:23:25).

나. 이제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듣고 붙잡아야 합니다.

- 우리는 이해되어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 12가지 인생문제를 그리스도 말미암아 해결하신 해방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엡2:1-2, 롬8:1-2).
- 또한 영원한 보장이 되는 반석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마16:16-19, 롬8:31-39 → 행1:1, 1:3, 1:8).

결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지만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지금 남아있는 이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붙들고 가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수23:7)” 그것이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승리의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지금 이후의 세대들이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며 증인으로 섰습니다(수23:14-16).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행1:1, 1:3, 1:8의 길을 가심으로 언약을 내가 누리고 후대에게 전달하시길 축원합니다.